

일요일 아침 6시. 지난 밤에 쟁겨온 다과 보따리를 들고 집을 나서는 이보살(57). 집을 떠날지 두시간만에 이보살이 도착한 곳은 1사단 대대법당 해국사. 이씨가 법당에 들어서자 와하는 환호성과 함께 순식간에 병사들이 노보살을 에워싸며 보따리를 받아들인다.  
 “요즘 몸은 어떠니? (보형삼매경편)은 하루에 몇번씩 독송하니?” 등의 안부를 물으며 이씨는 일

## 작은 실천 큰 기쁨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많이 장병장자들의 손을 잡아준다. 얼핏보면 오랜만에 아들을 뵈온 어머니의 모습이다.  
 이씨가 풀어 놓는 보따리 속에서는 어김없이 초코파이가 쏟아져 나온다. 10년동안 한결같이 이씨의 단골 메뉴로 사랑 받아온 초코파이다. ‘초코파이 보살님’이라는 별명과 함께.  
 이씨는 매주 일요일마다 군법사가 없는 군법당 법회를 지원하며 군포교의 대모(?) 역할을 하고 있다. 법회에 나갈때마다 어려운 살림에도 초코파이를 꼭 마련한다. 한 번 갈때마다 1백개 이상씩을 준비해 갔으니 10년동안 이보살이 군법자



들에게 전달할 초코파이만도 4천개가 넘는다. 이씨의 군포교는 식당 구석에 종이 부처님을 만들어 놓고 법회를 봉행하고 있다는 1사단 대대 군중병의 가슴 뭉클한 사연을 접하고 부터 시작됐다.  
 “예나 지금이나 초코파이 만큼 군인들의 사랑을 독차지 하는 것이 없습니다. 영어 준비해간 초코파이가 모자라 못 먹는 병사가 생기면 어쩔나 마음 졸이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이씨는 초코파이와 함께 부처님 법도 전달한다. 15년전 기독교에서 개종, 불광사 광덕스님으로 부터 법명을 받은 후 계속 정진수행해 6년전 조계종 포교사에 임명됐다.  
 기력이 떨어져 움직일 수 없을때까지 앞으로도 계속 군포교에 나섰다는 이보살.  
 “10년동안 군법당을 찾다보니 아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이런 그 녀석들이 결혼해서 부인까지 데리고 옵니다. 군안들만 포교 한줄 알았는데 불자며느라들까지 생겨 신바람이 납니다. 부처님법 전하며 사는 기쁨이 바로 이런것이지구나 세상 느낍니다.”  
 (김주일 기자)

구독료납부 은행지모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인터넷 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

# 부처님 오신날 ‘자비의 燈 달기’ 확산

‘맑고...’ 우리는 선우·전북불교대 등 앞장  
 실직자·장애인·북동포돕기 기금마련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 등을 밝히자”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자비와 등(燈)밝히기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올해 자비의 등 밝히기는 단순히 등을 밝히는 데 그치지 않고 수익금 전액을 고 통발하는 이웃을 위해 쓸 계획이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맑고향가톨릭(회주 법정)은 ‘이웃을 위해 다는 연등’이란 주제로 등을 짚수받고 있다. 맑고향가톨릭은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 등의 명칭도 △세상의 모든 아픈이들을 위한 등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아가들을 위한 등 △어려움에 처한 나라를 위한 등 △힘겹고 고단한 삶을 사는 당신을 위한 등 등으로 정했다. 수익금 전액은 복지시설 후원과 실직자들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다.  
 우리는선우(공동대표 남지심·박광서)도 ‘북한동포를 위

한 민족돕기 등 ‘해외난민을 위한 구호의 등’ ‘일체생명을 위한 왕생의 등’ 등 10종류의 자비의 등을 짚수 받고있다. 짚수된 등은 4월13일 저녁 8시 장충단공원에서 ‘이 세상의 모든 아픔이 벗겨지고 행복으로 가득 하기를’ 기원하는 점등식을 갖고 5월 5일까지 불을 밝힌다.  
 우리는선우는 “어려운 때 일수록 이웃과 함께하는 소중한 마음을 불자들이 함께 나누어 한다”며 “자비의 등은 장애인과 불자들이 하나가 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동산반야회(회장 김재일)는 지난해에 이어 북동포돕기 ‘함 더 더 커기 운동’ 일환으로 노란 등을 단다. 수익금 전액은 금강국수공장 설립 및 식량지원금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다.  
 전주 전북불교대학(학장 김건기)은 ‘이웃 등 밝히기 운동’을 전개한다. 지난해부터 이 운동을 펼치고 있는 전북불교대학은 올해 실직자·북한동포를 돕기 위한 자비의 등을 신선했다.  
 이밖에도 광명시 금강정사(주지 벽암)가 이웃과 사회를 위한 통일 화합 나눔 전법 지혜 자비의 등을, 국민체육진흥공단 무량회(회장 손영철)는 소외된 이웃을 위한 백발달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김종근기자)



◇인각사에서 출토된 통일신라시대의 귀면의(사진위)와 암막새(왼쪽), 토기(오른쪽)

## 인각사에서 통일신라유물 발견

승가대불사 연구 귀면와·암막새·토기 등  
 (삼국유사)의 산실 군위 인각사(주지 대일)에서 통일신라시대의 것으로 보이는 귀면와와 2점을 비롯 다양한 암막새, 광기, 토기 수십점이 발굴됐다. 2월18일부터 40일간 인각사를 발굴조사한 중앙승가대 불교사학연구소는 현 사찰외곽의 기림당지에서 인각사의 향건시기를 밝혀줄 통일신라시대의 유구가 다량 발견됐으며 “정면 확대 발굴조사 및 담장과 건물지의 평면 복원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최주상보)



식목일... ‘희망을 심는다’ 식목일을 맞아 조계 각 단체와 사찰에서 희망을 심는 식목행사가 펼쳐졌다. 서울 천주사(주지 이규범)는 5일 일요가족법회 전회원이 참가한 가운데 유실수 심기 및 꽃동산 가꾸기 행사를 가졌다. 조계사 어린이회도 5일 조계사 경내에서 꽃심기행사를 펼쳤다. 맑고향가톨릭은 3월29일 오전8시 서울 성북동 길상사 극락전 뒷편 언덕을 꽃동산으로 장엄했다. 사진은 천주사 유실수 심기 현장  
 (사진=고영배 기자)

## “권리제한 폐지-종헌 개정”

선학원, 조계종에 요구  
 선학원(이사장 정일)이 조계종에 대해 현재 실시하고 있는 선학원 소속 스님들에 대한 권리제한의 해제를 요구했다. 또 조계종 종헌 9조3항을 ‘손실’하지 않고는 종단과의 현안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점을 찾을 수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선학원은 1일자로 발행된 기관지 ‘선인’에 게재한 ‘장관개칭 요구, 종단에 묻는다’ 제하의 기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선학원은 “현재의 공식 명칭인 ‘재단법인 선학원’을 ‘대한불교 조계종 선학원’으로 하자”는 요구에 대해 “재단법인이 재단법인임을 명시하는 정관에서 ‘재단법인’을 빼면 사실상의 해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명칭이 변경될 경우 등기부 등본상의 소유권자가 모두 변경되어야 한다”며 난색을 표했다. 또 “종지부대” 요구와 관련 “민약의 경우 정관에 종지중단을 용인한다고 삽입했을 경우 종단이 또다시 종헌중단을 바꾸어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상황을 연출한다면 재단스님들은 불이익을 당할지도 모른다”고 밝힌 종단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종단이 “선학원 임원을 조계종 승려로 하지”고 요구한데 대해서는 “이미 관례대로 조계종 소속 스님이 임원을 맡고 있다”며 “’96년 8월27일의 합의에 따라 내부규정으로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 “법행스님 조실추대 반대”

조계종, 법주사에 공문  
 조계종 총무원이 법주사가 발행스님을 조실로 추대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과 관련 “종도로서 종헌 중단을 준수하지 않는 처사”라며 반대 입장을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총무원은 3월31일자로 법주사

## 불교문화 체험기행

4월 ‘백제인의 미소와 승결을 찾아서’  
 수덕사, 개심사, 서산 마애삼존불  
 ◇출 발: 4월12일(일) 오전7시·조계사 앞  
 ◇회 비: 3만5천원(침실제공)  
 ◇접수처: 현대불교신문사(02)737-8881, 722-4162  
 혜조여행사(02)722-3900  
 ◇은행계좌: 조흥은행 322-04-221460(선정호)  
 ※단체참가 적격 환영합니다.  
 주최: 현대불교신문사 협찬: 일망약품  
 주관: 혜조여행사

## 신흥사 참회법회 중계안내

불교방송 4월 5일(일) 오후2시~3시 생중계  
 불교TV 4월 7일(화) 녹화중계(2회)  
 오전11시 10분~12시  
 오후8시~8시 50분

철웅스님 경제난극복 법회 12·13편

IMF 증후군 ‘확산’ 20편

# 최고의 기술로 신뢰받는 기업·효성중공업

세계 어느곳에 내놓아도 경쟁력있는 기술,  
 우리 산업발전에 초석이 될 수 있는 기술·  
 효성중공업은 선이 굵은 첨단 기술로  
 우리 중공업의 자존심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전략사업부**  
 산업에-1차의 핵심 이루는 각종 중전기 및 승변전설비를 생산 공급함으로써 전력의 고효율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기전사업부**  
 산업의 원동력이 되는 전동기를 비롯하여 각종 볼트너트 등 본 발진소용에 이르는 다양한 산업기계 및 설비개발로 산업 진 분야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사업부**  
 최첨단 MECHATRONICS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고기능 단위 요소기에서 분산, 집중제어 SYSTEM까지 완벽한 자동화를 실현한 TOTAL FA SOLUTION을 자신있게 제안합니다.

**건설부문**  
 한치의 오차도 허용치 않는 세심한 설계와 시공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효성중공업주식회사**  
 HYOSUNG INDUSTRIES CO., LTD  
 Tel. 02)707-6114 Fax. 02)714-0707  
 http://www.hico.co.kr - 크로바서비스 080-024-8282